

# 國際表面處理會議의 參席을 마치고(II)

## (INTERFINISH 92)

### 3. 공장견학

9일날은 공장견학의 날이었다. 두 코오스가 있었는데 하나는 Mr.Ett 공장으로서 브라질의 최대 표면처리공장으로서 각종 표면처리를 하고 있다고 일본 林(하야시)교수가 말했다. 이곳을 갈까 했더니, 보여줄 것은 새로 설치한 자동아연도금장치와 전착도장설비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것은 버앗자이므로 포기하고 무전해니켈도금 등을 한다는 또하나의 코오스를 택하기로 하였다. 오전 8시30분에 약 40명의 회원 및 가족으로 구성된 견학단이 상파울로 근교의 공장지대로 안내되었다. 가는 도중에 보이는 상파울로의 빈민굴은 이루 볼수가 없을 정도로 저지분한 하고방에서 살고 있었으며, 특히 다리 밑에서 사는 빈민은 우리나라에서는 볼수 없는 참혹한 것이었다. 상파울로시는 인구가 1,300만명으로 서울보다 약간 많다. 기후는 아열대 지방이나 해발 700m의 높은 곳에 있어서 기후가 우리나라의 봄(지구의 반대이므로 우리와는 겨울과 여름이 반대이다)과 같은 기후였다. 사실 이 도시는 산업도시로 브라질 GNP의 50% 가까운 생산이 이 도시 한개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따라서 한때는 독립을 시도한 적도 있다고 한다.

1시간여에 목적지인 공장지대를 갔는데, 공장들은 대단위가 아니고 소규모들이었으며, 견학한 FOSFAZIN이라는 공장은 종업원 81명으로서 주로 자동차의 카브레타(알콜 자동차용 아연 다이캐스트)를 무전해니켈도금을 하고 있었다. 무전해니켈도금액은 8,000 L의 큰 용량으로서 브라질에서는 최대의 공장이라고 했고, 상파울로에는 360개의 도금 공장이 있다고 하며, 무슨 이야기인지 전국에는 8000개의 도금공장이 있다고 하였다. 이 브

라질 제일의 도금 공장의 규모는 20여m의 무전해니켈라인 하나와 반자동 캐리어식 산성아연도금 장치(2중 바렐식)뿐이며, 무전해니켈라인도 반자동 호이스트식이 였다. 일반적인 견학의 예에 따라서 작업대 위로 올라가서 도금하는 상태를 보고자 했더니 대외비라서 올라가지 말라고 하여, 그러면 배기장치등이 잘 되어 있어서 그것을 담기 위해 사진을 찍겠다고 하니 그것은 허락이 되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가지의 사진을 찍었다. 이 카브레타는 사발 같이 속이 깊게 파여 있어서 동스트라이크 및 무전해도금하는데 공기가 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락크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다. 이것도 사진에 담았다. 또한 폐수장치는 모두 지상에 장치되어 일반적인 침수 또는 처리조를 펌트식으로 땅속에 탱크를 묻는 우리들의 방법과는 달리 브라질에서는 이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여하튼 성비는 온색으로 깨끗하게 도장되어 있었다.

### 4. 관 광

10월9일의 오후는 그간 친했던 네덜란드의 국립연구소 표면처리책임자와 시내 관광차 뱀공원, 미술관, 공원등을 돌아다녔다. 그간 한국음식을 먹고 싶어서 여행사 사람과 만났다. 그때 우리 교포들의 실상도 알기 위해 한국사람들의 옷가게가 있는 곳을 지나갔다. 한 거리가 거의 한국사람들의 옷가게였으며, 상당히 깨끗하게 진열하여 우리의 양품점 같았다. 상파울로에는 약 5만명의 교포가 산다고 했다. 일본사람은 100만 정도로 우리보다 잘 살고 있었다. 한국사람들은 모두 브라질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으며, 안내한 한국인은 변호사도 하며 부인이 여행을 하는 집으로서 집에는 식모등 2-3사

림을 두고 있었다. 인건비는 한달에 \$100이라고 했다. 한국 음식점은 “커거래 식당”이라고 우리말의 간판도 있었다. 내부는 예상외로 크고 많은 외국사람들이 식권을 끊기 위해 줄지어 있었다. 뷔페식이며, 20가지쯤 되는데 무게를 달아서 계산하는 방법이었다. 갈비등 두사람이 잘 먹고 계산하는 것을 보니 둘이서 4천원정도(30,000Cr정도)이며, 상당히쌌다. 10월10일 아침 9시 상파울로를 VARIG항공으로 대망의 리오데자네이로로 향하여 1시간후에 도착하였다. 택시로 브라질에서 가장 유명한 해변인 코파카바나의 예약된 호텔로 향했다. 택시가 달리는 동안의 리오의 거리 좌우에 빈민가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지붕이 없는 2층에 붉은 벽돌로 칸막이 같이 되어 있었다. 이것은 이 도시 어느 곳에서나 볼수 있었고 상파울로에서와 같은 극빈층은 없다는 것을 알수가 있었다. 해변가가사이의 아름다운 Rodrigo de Freitas호에서부터는 수영복 차림의 반라의 많은 사람들이 들끓어서 해수욕장의 기분을 진하게 풍기었고, 화려한 피서지라는 면이 엿보였다. 호텔은 해변가의 2류 호텔로서 그런대로 깨끗하고 해수욕하기에 편리한 곳이었다. 도착하는데로 바로 프론트에서 관광 스케줄을 썼다. 우선 10일 오후는 리오의 시내관광을 하였다. 관광버스는 우리가 투숙한 코파카바나를 출발하여 아름다운 경치와 고운 모래가 풍부한 상기의 潮水를 지나 아름다운 Leben 및 Ipanema해변을 한쪽 끝에서 바라보고 서있는 Sheraton 호텔에서 관광객을 싣고 떠났다.

Intercontinental호텔에서 마지막 손님을 싣기 위해 가는 도중 빈민촌(달동네)을 거치게 되었는데 낮은 산에 모여 사는 빈민은 25만명에 달한다고 하며, 이와 같이 거대한 빈민 집단은 세계에서 이름난 곳이라며 경찰도 잘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냥보기에는 붉은 벽돌 집들이 뽀뽀하게 들어서 있으며, 상파울로에서 보던 그런 남루한 하고방들은 아니었다. 시내를 거치는 동안 우리의 가장 관심거리였던 리오카니발의 본거지를 지나가게 되었다. 이 카니발은 매년 2월 말경이나 3월 상순에 3일간 저녁 8시부터 그 이튿날

아침 7시반까지 밤새 삼바춤의 행렬이 약 300m의 일직선의 스탠드 앞을 지난다 하며, 입장료는 하루 \$100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코파카바나해안 북쪽 끝에 있는 높이 400m의 바위로 된 폰데 아스칼(Pao de Acucar)봉오리를 캐이블카 한번 갈아타고 정상에 올라갔다. 바로 해변이어서 그 바로 밑에는 고층 아파트가 준비하였고, 아름다운 구아나바라 및 코파카바나 해변과 리오데자네이로 전체의 도시의 경관도 내려다 볼 수가 있었다. 많은 것을 카메라에 담았다. 11일 아침에는 호텔에서 학회에 참석했던 스웨덴 친구와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이 사람은 마침 또하나의 유명한 해변가의 절벽인 Corcovado로 가는 참이었다. 나도 동행하기로 했다. 택시로 올라가는 입구까지 갔는데 여기는 전동차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마침 일요일이라서 입구에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표를 사고 있었다. 한편에서는 택시 운전사가 우리보고 자동차로 가면 빨리 갈수가 있다고 유혹을 했다. 스웨덴 녀석이 택시운전사의 이야기를 검토한 결과 이 유혹을 거절했다. 나중에 전동차를 타고 올라가는 도중 이 산의 정상 가까이까지 자동차로 갈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전동차는 거의 직선으로 약 40도정도의 경사를 기아를 물리면서 숲속을 관통하면서 올라갔다. 객실은 다섯 개 정도를연결하여 힘겹게 올라갔다. 생전 처음 이러한 급경사의 차를 탔지만 숲이 우거진 좌우의 경치는 또한 절경이었다. 이 산의 중간 중간에서 전동차는 2-3번 쉬고 정상에 도달하였다. 작년에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다. 일본 오사카에서 동기동창회가 있어서 참석했는데 이때 고베(神戸)의 뒷산으로 상당히 높은 六甲山을 캐이블카로 올라간 적이 있었다. 거기서는 숲속이 아니고 산등성이였으므로 내려다보는 경치 뿐이었다. 거기에도 높은 산속에는 군데군데 별장과 아파트 같은 연립주택이 있었고 산장까지 자동차로 올라갈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인상 깊게 느낀 적이 있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높은 산과 경사에 자동차길이 만들어져 있었다. 여기를 올라가는데는 자동차보다는 전동차로 숲속을 올라가면서 아열

대 지방의 신기한 나무들을 감상하며 보지 못한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도 볼수가 있어 감명 깊었다. 정상에는 많은 사람들로 꽉 메웠고 줄을 서서 정상에 있는 십자가 탑으로 여러 계단을 타고 올라갔다. 높이가 700여m인 이 산 꼭대기에 38m 높이의 예수의 손벌린 석상을 만든 것은 돌의 크기 등으로 보아 상상하기 힘든 공사였다. 이 예수의 상은 리오데자네이로의 항구를 향해 손을 십자가 형으로 벌렸고 이것은 리오의 평화를 위해서 복을 내리는 상징이라는 것이었다, 정상에서의 경치는 마침 쾌창한 날씨여서 사방의 아름다운 경치는 극치였다. 아름다운 해변은 사방에 수없이 있었고, 도시의 경치도 세계 3대 미항답게 아름다웠다. 3대 미항의 또하나인 이태리의 나폴리를 91년 여름에 갔었지만 여기 같은 아름다움은 아니었다.

11일 오후는 꿈에 그리던 또한 항상 그림에서만 보던 코파카바나 해수욕장의 수영을 즐기기로 하였다. 이 해수욕장은 길이가 3-4km에 달하며, 모래는 고운 설탕 같이 희고 가늘며, 다른 곳에서는 볼수 없는 아름다운 것이었다. 귀국도중 우리의 꿈의 낙원인 하와이의 와이키키 해수욕장에서 하루를 묵었는데 와이키키는 모래도 굵고 모래사장의 폭도 좁으며, 바다 속은 돌등 걸리는 것이 많았는데 이 해수욕장은 모래의 폭도 300m가 넘고 돌 하나 볼수 없는 그야말로 밀가루 같은 모래였다. 여기다 여자들의 수영복은 와이키키에서도 볼수 없었던 실 같이 가는 것이며, 남자 것도 또한 최소한의 크기였다. 한국에서 가지고간 수영복은 촌스러워서 해변 노점에서 3천원에 하나 샀다. 여자 수영복도 또한 3-4천원에 예쁜 무늬의 것을 팔고 있었다. 남자가 노는 모습도 미국에서도 볼수 없는 진한 행동들이었고 주위의 눈에는 개의치 않는 모습이였다. 대체로 리오는 상파울로 보다는 국제화되었고, 깨끗하며, 구라파의 어느 도시와 같은 높은 수준이었다. 해변에는 일반 아파트 등이 있어 주거를 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상기 호수변에는 세계 각국의 돈 많은 사람들이 별장삼아 아파트를 사 놓고 있다고 하며 값은 방 2-3개짜리가 100만불정도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곳에도 거

지들이 많아서 점심을 먹는 동안 식당 노천 테이불 옆에는 거지들이 죽치고 있어 먹고 남은 음식을 얻고자 대기하고 있었다. 여기서는 스테이크가 대략 7-8천원 하는데 한국의 2배 정도의 크기여서 항상 반은 남겼었다. 어떤 10대 거지는 아주 멀쩡했다. 식사후 그 부근의 미술관을 방문하여 브라질 특유의 조각과 그림을 감상할 수가 있었다. 누드의 그림과 조각상의 표현은 더욱 감각적이었다. 밤에는 이곳의 최대의 관광객용 삼바쇼 극장에 갔다. 개인이 하는 관광안내였다. 이것은 INTERFINISH의 여행사가 상파울로에서 알선한 것으로 저녁 식사 포함한 코스였다. 삼바쇼는 상파울로에서 본 삼바쇼와는 규모가 완전히 다른 웅장한 것이였고 세계 각국에서 온 몇 백명의 관객이 있었다. 우리 워커힐 쇼 같은 화려함이었으나 식사는 다른 레스토랑에서 하고 관람석만 있는 극장식이었다. 쇼의 마지막에는 약 40여개국의 이름을 부르며 그나라의 노래를 부르던가 그나라 특유의 댄스 등의 쇼를 하게 했는데 동양에서는 일본, 인도, 중국, 싱가포르, 터키, 말레이시아 등의 호명은 있었으나 한국의 호명은 끝내 없었다.

12일의 하루는 코파카바나 해변에서 환전과 해수욕에 시간을 보냈다. 환전을 호텔에서 처음 했을 때 \$100에 650,000 Cr.만 준 적이 있어서 다시 물어보니 680,000 Cr.만 주겠다는 것으로 바가지를 쓰는 것 같아서 은행을 찾아가기로 하였다. 은행에서는 여행자 수표를 무려 734,000 Cr.에 바꾸어 주었다. 12일만에 54,000 Cr.가 오른 셈이다. 이것이 브라질의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은행은 되게 복잡했다. 길게 줄을 섰고 외국인의 \$교환은 30분쯤 걸렸는데 내국인은 1시간도 더 걸리는 것 같았다. 은행은 비좁고 서민 금고같았다. 계원은 50여세인데 우리들과 같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볼펜을 사용하였다. 그 많은 양을 하루 종일 쓰고 주고 하고 있었다. 다시 4시경에 \$100을 더 환전코자 같은 창구에 가서 줄지어 기다린 후 \$를 내밀었더니 \$는 3시까지만 교환해준다고 하며, 내국환만 취급하고 있었다. 해변은 오전에는 뜨겁고 사람도 많으나

오후 2시 이후는 선선하며 사람이 거의 없었다. 밤에는 스웨덴 친구와 상기의 호숫가를 거닐었는데 곳곳에서 야외 공연이 있어서 마치 밤카니발 같은 기분이 들었다.

13일에는 스웨덴 친구와 같이 코파카바나 해변 뒤의 상가 및 남대문 시장 같은 곳에 가서 토산품 등을 구경 했다. 그리고 밤 10:30발 비행기로 정 들었던 브라질을 고별하였다.

브라질을 떠나면서 “브라질은 복된 나라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다. 브라질은 지하자원이 많은

나라였다. 금도 노천에서 캐내고 철광석도 십여년 전에 새로 발견되어 노천에서 채광하여 포항제철에 팔고 있었다. 곳곳에 있는 은빛의 고운 모래들, 우리의 80배나 되는 광활한 토지에 인구는 우리의 4배미만, 그리고 그 많은 숲과 가축들, 현재는 사람들이 게을러서 비록 일개월 \$100 정도의 임금체계지만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나라다. 리오의 해변은 다시 찾고 싶은 감미로운 여운을 남기면서.....